

# 북한품질연구회의 필요성

김 국(서경대학교)

([ksk@skuniv.ac.kr](mailto:ksk@skuniv.ac.kr))

## 초록

북한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생산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기술력이 아직 현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빈약한 경제환경이었던 70년대에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확산 보급하여 산업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경험을 북한에 살려 품질관리 기법과 내용을 전수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 고자 하여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 1. 목적

북한의 경제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기술력이 아직 현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의 3M, 여기에 경영의 M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 허허벌판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것을 볼 때, 북한도 발전의 전망 이 높다. 한국에서는 70년대에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확산 보급하였는데 이것이 산업화와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현재 북한에 ISO9000이나 6시그마 기법과 같은 것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의 품질관리기법 확산의 경험으로 북한에 품질관리 지도,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 교류시대를 대비할 때 상호 이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기술, 관리기법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북한에 전수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회의 취지이다.

## 2. 남북규격비교

### 2.1 개요

남북의 표준 또는 규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서로의 상이점과 그 정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남북 표준, 규격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이 분야의 통일 비용 모델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남북한의 산업규격의 구성과 분류체계 및 그 특성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 본다.

한국산업규격(KS)는 2000년 1월 현재 1만여 종이 제정되어 있으며 북한의 산업규격 KPS(소위 국규)는 97년 1월 기준으로 1만여 종이 제정되어 있다. KS의 분류체계는 16개 부문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알파벳 ABC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국규는 기호 ㄱ~ㅈ 순으로 산업을 1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규격전체를 총괄적으로 1부터 일련으로 정리하고 있다.

남북한간 산업규격은 분류, 분류기호 부여 등 외형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또 중점 육성산업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대응 규격을 찾아 비교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KS 대 국규는 1:1이 아닌 m:1, 1:m의 대응이 많이 존재한다. 북한은 중공업, 광산, 삼림 분야, 구식(한국이 볼 때)의 도구, 설비, 제품에 관한 규격들이 많고, 전통문화, 체육과 같은 독특한 부분들도 존재한다. KS는 관련규격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첨단 기술분야와 컴퓨터에 대한 규격화가 많다.

용어의 경우 북한은 고유의 조어방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말 중심의 단어와 과거의 영어 발음을 따른 표기와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KS규격은 영어 원어 발음에 가까운 표기와 한자식 조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규격의 엄격함 수준은 대개 KS가 다양한 관련규격을 보유하고 있고 정확도나 정밀도 수준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 2.2 KS규격

KS규격은 16개의 대분류(원래 부문이라고 칭함)로 이루어져 있고 각 대분류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낸다. KS A 0123에서 A는 기본 부문, 0은 기본일반, 123은 제정순서 또는 적절한 소분류 개념에 의해 일련번호로 정해진다. 중분류의 예로 A0는 기본일반, A1~A2 포장일반, A3 공장관리, A4 방사성 관리, A5 기타와 같다.

<표 1> KS 규격의 대분류

대분류		대분류	
A	기본	K	섬유
B	기계	L	요업
C	전기	M	화학
D	금속	P	의료
E	광산	R	수송기계
F	토건	V	조선
G	일용품	W	항공
H	식료품	X	정보산업

이러한 중분류 개념을 “KS 규격서의 서식”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규격수가 많아지면 융통성있게 적용할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ISO 등 국제표준의 기호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를 들어 환경분야의 14000과 같이 규격번호의 자릿수 증가를 인정하여 현재 5자리의 숫자까지 적용하고 있다.

## 2.3 국규

국규는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와 세부규격으로 나뉘며, KS에는 없는 소분류가 추가되어 있다.

국규는 18개의 대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분류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규의 대분류

구분	명 칭	구분	명 칭
ㄱ	광업, 유용광물	ㅋ	화학제품 및 고무, 돌솜제품
ㄴ	원유제품	ㆁ	방직 및 가죽재료와 그 제품
ㄷ	금속 및 금속제품	ㆆ	식료품 및 기호품
ㄹ	기계, 설비 및 공구	ㆅ	측정계기 및 기구
ㅁ	운송수단 및 용기	ㆉ	보건 및 위생
ㅂ	동력 및 전기설비	ㆌ	농업, 산림 및 축산
ㅅ	건설 및 자재	ㆍ	과학기술용어, 기호 및 수치
ㅈ	요업재료 및 제품	ㆎ	문화생활용 제품 및 관리
ㅊ	통나무, 나무, 나무제품, 펄프, 종이, 관종이	㆏	전자, 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국규의 경우, “국규 10095 평판식칼판 형 및 치수”와 같은데, 규격번호는 일정 자리수가 아니고 1에서부터 일련번호이며, 이 번호로는 이 규격이 분류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없다. 규격의 분류는 ㅁ(운송수단 및 용기) 아래 ㅁ3(오토바이 및 자전거)과 같이 다른 분류구조이다. 쉽게 말하면 이중구조이다.

대분류 이하 한자리에 숫자를 부여하여 중분류로 나누고, 다음의 한자리에 숫자를 부여하여 소분류로 나눈다(예, ㅁ31). 따라서 분류별 찾기가 용이한 반면, 새로운 분야의 규격 제정시 특정 소분류의 생성이 필요하고 규격번호 만으로는 분류 개념을 알 수 없다.

북한의 국규는 그 체계가 ISO와 흡사하다. 그러나 ISO에서 적용하는 ICS(국제표준분류체계)는 40개의 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그룹도 세부적으로 전개되지만, 국규의 체계는 규모면에서 매우 빈약하다.

## 2.4 남북한 규격의 대응

남북한 규격의 대응은 중분류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리고 규격의 제목을 검색하여 그에 해당하는 분류를 찾아 그 하부에서 대응규격을 찾아낸다. 그러나 양 규격의 정확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응 규격이 지칭하는 범위는 상당히 다른 면이 많다.

국제표준분류체계(ICS) 코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KS D 3609의 ICS코드 예는 91.060.10, 91.060.30과 같은 예이다.

한 예로서, 자동차에 관련된 규격의 남북한 대응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KS와 국규의 중분류 대응표 (수송기계)

KS		국규	
대분류(부문)	중분류	중분류	대분류(부문)
R 수송기계	자동차 일반	☐2. 자동차, 트랙또르 및 련결차	☐. 운송수단 및 용기
	시험검사방법	☐2. 자동차, 트랙또르 및 련결차	
	공동부품	☐2. 자동차, 트랙또르 및 련결차	
	기관	☐2. 자동차, 트랙또르 및 련결차	
	차체	☐2. 자동차, 트랙또르 및 련결차	
	전기장치, 계기	없음	
	수리조정 시험	없음	
	수리기구	없음	
	자전거	☐3. 오토바이 및 자전거	
	철도용품	☐3. 철도운수	

KS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국규의 세부항목을 대비한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KS와 국규 세부규격 대비표

KS 번호	KS 규격명	국규분류	국규번호	국규 규격명
R0011	자동차 용어 1 (자동차의 종류)	☐20	국규 5865-83	자동차. 분류 및 자호
R0012	자동차 용어 2 (자동차의 치수, 질량, 하중 및 성능)	☐20	국규 6000-83	자동차. 질량한계
R0023	자주 크레인 용어	☐40	국규 4459-77	자행기중기. 용어 및 기호
R8002	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30	국규 2616-84	자전거 분류 및 자호
R8011	자전거용 차체	☐32	국규 5986-83	일반형자전거. 행 및 치수
		☐32	국규 886-83	일반 및 운반형 자전거차체. 치수
R8032	자전거용 짐받이 및 스탠드	☐32	국규 5988-83	일반형자전거짐틀. 형 및 치수
R9142	철도 차량의 무게 측정 방법			

남북 경협은 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한국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남북 간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규격 통일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남북 대응규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없지만 공통의 정도가 큰 것부터 규격통일을 하고(규격번호체계도 합의도출이 필요) 과도기적으로 일정기간 남북 규격을 사용하여 시장선택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국제규격(ISO, IEC, ITU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남쪽의 전압이 200볼트, 북쪽의 전압이 100볼트라면 규격의 통일은 둘 중의 하나가 되어할 것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 중간치인 150볼트로 선정할 경우 양쪽다 낭패이다.

### 3. 남북품질관리용어 통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학문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분단 50여 년간의 격리로 인해 상이해진 과학기술용어의 정비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총의 주도로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3개 분야 45,000여 개의 용어를 남.북어로 대조하여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국어정보학회,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및 중국내 조선어정보학회는 2001년 2월 중국 연길에서 “2001년 코리언 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들 모임의 정보기술용어분과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1단계 사업으로는 ISO 2382 (1~34권) 정보기술용어 규격집을 중심으로 정보기술 용어의 남북한 통일안을 만들었다. 성과물로는 4천여개의 국제규격 용어에 대한 영어 및 남북한 통일안, 중국어 용어, 일본어 영어 등 다국어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국어정보학회, 2002년 6월). 이 작업은 용어형성에 관한 국제규격 ISO 704 "전문용어 작업의 원리 및 방법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과 이 규격을 우리말에 적용하여 정리한 “정보기술용어의 우리말 다듬기와 표준화에 관한 연구(리수락, 2001)”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Korterm에서는 웹 <http://term.kaist.ac.kr/iso2382>에서 이 통일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그림 1>은 웹페이지의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그림 1> <http://term.kaist.ac.kr/iso2382> 초기화면

<b>ISO2382 소분류 선택</b> 1 : Fundamental terms <input type="text" value="이동"/>		<b>처음으로   남북 정보기술용어 표준화 사업   정보기술 용어 남북 통일안 지침</b>																									
<b>문자열 검색</b> <input type="text" value="모든 항목"/>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b>남북 정보기술용어 통일안에 의견을 주십시오.</b> 국제규격에 따른 정보기술용어의 남북통일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어의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서비스 불편사항이 있으신 문은 <a href="mailto:gerling@world.kaist.ac.kr">gerling@world.kaist.ac.kr</a> 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English</th> <th>남북용어용어</th> </tr> </thead> <tbody> <tr> <td>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td> <td>정보(정보처리에서)</td> </tr> <tr> <td>data</td> <td>자료, 데이터</td> </tr> <tr> <td>text</td> <td>본문</td> </tr> <tr> <td>to access</td> <td>접근하다, 찾아가다</td> </tr> <tr> <td>information processing</td> <td>정보처리</td> </tr> <tr> <td>automatic data processing</td> <td>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td> </tr> <tr> <td>automatic data processing: ADP</td> <td>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td> </tr> <tr> <td>data processing: DP</td> <td>자료처리, 데이터 처리</td> </tr> <tr> <td>hardware</td> <td>하드웨어</td> </tr> <tr> <td>software</td> <td>소프트웨어</td> </tr> <tr> <td>firmware</td> <td>펌웨어</td> </tr> </tbody> </table>		English	남북용어용어	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정보처리에서)	data	자료, 데이터	text	본문	to access	접근하다, 찾아가다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처리	automatic data processing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automatic data processing: ADP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data processing: DP	자료처리, 데이터 처리	hardware	하드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	firmware	펌웨어	<b>남북 정보기술용어 통일안 마련의 추진 배경</b> 이 조사는 남북 정보기술용어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북 정보기술용어 통일안에는 남과 북의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한 용어를 통일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li> <li>2. 남북한 각 지역에 상이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li> <li>3. 합의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안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li> <li>4. 복수안의 경우 선호되는 용어를 앞에 두기로 하였습니다.</li> <li>5. 외래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고유어도 복수안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li> <li>6. 용어형성에 있어서 생산성이 활발한 영어 용어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말 표현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li> </ol>	
English	남북용어용어																										
informa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정보처리에서)																										
data	자료, 데이터																										
text	본문																										
to access	접근하다, 찾아가다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처리																										
automatic data processing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automatic data processing: ADP	자동자료처리, 자동 데이터 처리																										
data processing: DP	자료처리, 데이터 처리																										
hardware	하드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																										
firmware	펌웨어																										
		<b>용어표의 설명</b> 1. ISO2382는 정보기술용어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영어와 불어로 되어 있으며, 34개 하위부류에 대해 4045개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복 작업에서는 영어만을 대상으로 함)																									

정보기술에 대한 용어이외에도 생물학, 의학 등 전문분야에서는 해당 학회가 중심이 되어 남북한 용어집을 만들었거나 작성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의에서는 1996년에 남북한 의학용어 대비 용어집을 출간하였다.

품질관리용어는 남북교역이 날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 4. 남북 경험과 북한 품질관리 지원 접근법

##### 4.1 남북 간의 경험

남북간 경험은 작년 경추위 제12차 회의(06.6.3~6.6, 제주)에서 9개항의 합의문을 타결하는 등 때로 느리게 때로 급하게 진전되고 있다. 더구나 07.2.13 6자회담 타결과 북미 간의 급전하는 듯한 관계로 볼 때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열차시험운행을 전제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단천 민족 공동 자원개발, 개성공단 1단계사업 활성화 등의 문제와 연기된 열차시험운행의 실시를 중점 제기하였고, 비료공장 건설, 상업적 방식의 축산협력, 제3국 공동진출 문제 등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협사업을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북측의 대가 상환을 전제로 한 상업적 방식의 경제협력 모델 제시하였는데, 연체이자율 4% 설정은 남북경협에서 첫 사례이다.

열차 시험운동 실시 이후,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문제는 북한 국내법 정비문제, 재원조달 문제 등을 고려, 시간을 가지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 들이다.

개성공단에의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북측 근로자 안정적 공급, 북측 근로자 숙소 등 기업 생산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협의되었다.

임진강 수해방지나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의 공동 방지 협의사항은 생략한다.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데, 북측이 제기한 러시아 극동지역 광산개발 및 벌목 분야 협력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핵문제로 경색되었을 때 지지부진하였다.)

-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 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피, 마그네슘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 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링카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 6)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 7) 북측은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 공동조사, 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도로·철도·항만·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

9)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0) 이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4.2 남북 경협과 북한 품질관리 지원 접근법

2005년 11월 북한의 흥남, 함흥 지역에 출장가서 보고 들은 예를 보면 북한의 산업과 생활수준이 낙후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현 실정은 실상 남한의 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70년대는 확대 생산으로 국민소득이 급증하는 시대였는데, 북한은 아쉽게도 경제활성의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생산의 3요소인 인력, 설비, 재료 3요소가 낙후되어 있다. 인력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기술력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공산주의 특징 상 경영개념이 낮은 것도 생산 발전을 저해한다. 경영이란 자본가가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고도의 기법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다.

우리는 설비가 낡아 비효율적이면 처분한다. 비록 물건을 만들 수 있더라도 경제성, 경영 마인드로 보아 기대수익률을 내지 못할 경우 폐기하거나 중고로 팔거나, 동남아로 옮긴다든지 등의 전략을 세운다.

북한은 생산이 되는 한 보수해서 가동 사용한다. 설비보전이 현대적 개념이 아니어서 낡은 기계를 보수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금속부스러기, 오일 등이 제품에 섞이기도 한다. 식품 포장지의 무늬가 식품에 묻기도 한다. 초대소 상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그것도 소세지 등 기본 식품 대부분이다.

물류는 산업발전에서 중요한데 석탄 채굴된 것도 운송 물류가 없어서 배분 안될 지경이다.

그러나 한국도 70년대 허허벌판에서 산업화를 성공하였다. 북한도 약간의 원동력(펌프의 물한통)이 작용되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 북한 기업의 품질관리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한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고 생산적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보편화된 품질관리 기법을 교육한다. 그 내용으로 표준화 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등을 교육한다.

소요 인력이 중요한데, 현재 은퇴한 품질관리기사를 인력 활용한다. 예컨대 50세~60세와 같다. 교육자료와 실제 사용지침서도 병행하여 개발한다.

북한에서 교수 1개월의 급여가 우리 돈으로 3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필요로 해도 북한기업이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남북간 경제 교류를 위해 품질관리의 지원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북한품질연구회(또는 북한품질지원연구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한다.